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년 11월 18일, 15:00 pm ICT (Cambodia time).

OECD, “아세안 경제 회복세, 지속적인 성장 위해서는 개발 격차 줄여야”

프놈펜, 캄보디아, 2012. 11. 18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 5년간(2013년 ~ 2017년) 아세안 10개국의 경제 성장률이 경제 위기 전(2000년~2007년) 수준인 5.5%를 기록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OECD는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 2013』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 내 국가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 GDP 성장 (연간 변화율)

	2011	2000-2007	2013-2017
아세안 6 개국			
브루나이	2.2	-	2.4
인도네시아	6.5	5.1	6.4
말레이시아	5.1	5.5	5.1
필리핀	3.9	4.9	5.5
싱가폴	4.9	6.4	3.1
태국	0.1	5.1	5.1
CLMV 4 개국			
캄보디아	7.1	9.6	6.9
라오스	8.0	6.8	7.4
미얀마	5.5	-	6.3
베트남	5.9	7.6	5.6
아세안 10 개국 평균	4.6	5.5(*)	5.5
CLMV 평균	6.0	7.8(**)	5.9
아시아 국가 평균 (아세안 10 개국 + 중국, 인도)	7.8	8.6(*)	7.4
중국, 인도			
중국	9.2	10.5	8.3
인도	6.8	7.1	6.4

출처: OECD 개발센터, MPF-2013; [Add statlink]

주: 2012. 11. 1. 기준. 상세정보: www.oecd.org/dev/asiapacific/mpf.

*브루나이, 미얀마 제외; ** 미얀마 제외

아세안 경제는 2017년까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중국과 인도,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세는 점점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 지역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겠지만 아세안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은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인 회의에서 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를 바탕으로 한 내수 성장은 아세안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의 수출 의존도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것이며, 중산층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내수를 신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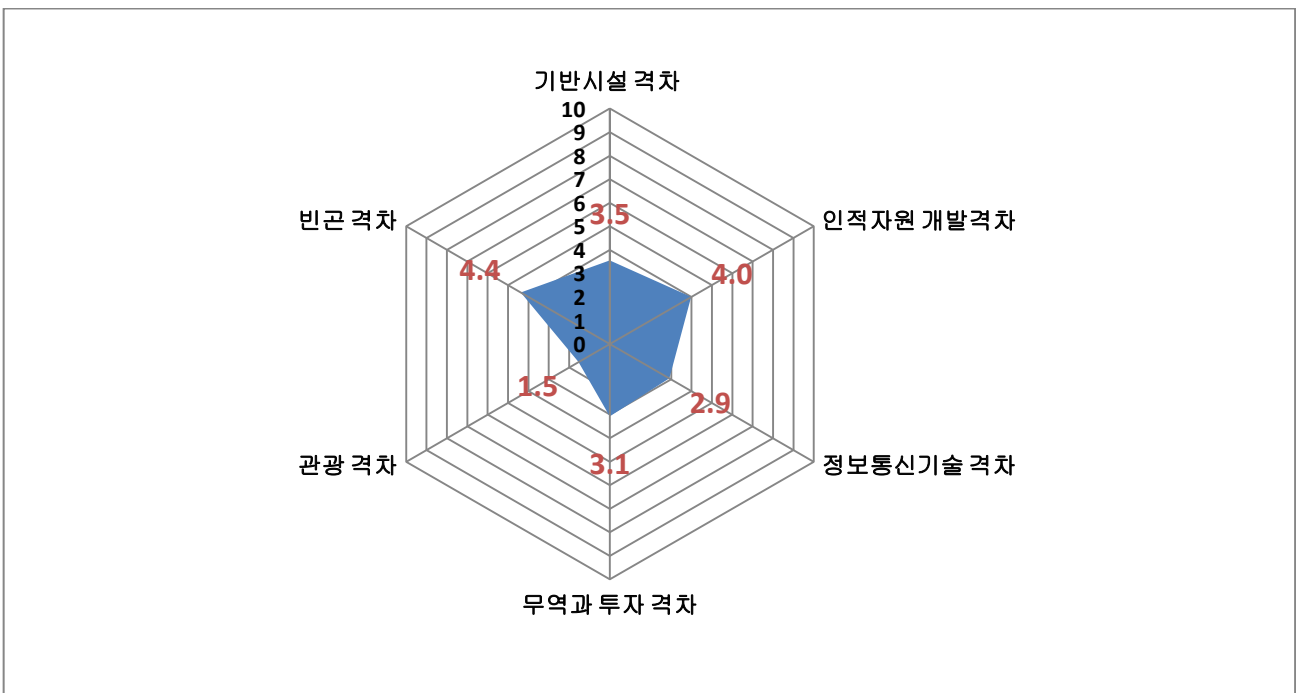
마리오 페찌니 OECD 개발센터장은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해당 지역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간 또는 국가내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구조개혁 정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 전략 성공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세안 지역 내 국가간 및 국가내 격차는 풀어야 할 과제이다. 발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아세안-6 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 CLMV 국가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사이의 격차와 더불어 각 국가내 격차를 축소시킨다는 의미이다. 2005 년에서 2011 년 사이 아세안-6 개국의 1 인당 GDP 는 CLMV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켄즈케 타나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 아시아국 국장은 '발전 격차는 단순히 소득 수준의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반시설, 관광, 무역과 투자,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그리고 빈곤 등 삶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의제이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빈곤과 인적자원에서 가장 폭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세안-6 개국과 CLMV 국가간 발전격차감소지표



출처 OECD 개발센터, ASEAN 사무국; [Add statlink]

주: 10 점 척도로 구성된 각 부문별 지표는 0 점은 무격차 10 점은 최대격차를 나타낸다.

아세안 각 국가에 따라 발전 격차는 다르게 나타난다. 베트남은 CLMV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소득이 높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격차와 국가 내 격차를 모두 줄이는 데 가장 성공하였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6 개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상대적으로 진전이 느린 반면, 국내 소득격차 축소에는 성공하였다. 한편, 라오스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이는 국내 소득 격차를 확대시켰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당면한 공통 과제는 낮은 노동생산성, 기능 불일치, 높은 비공식 부문 비중 및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고등 교육 기회이다. 더 많은 국민에게 보다 생산적이고 소득이 높은 직업을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책이 효과를 가질려면 정책개혁을 통하여 발전격차를 줄여야 한다.

2015 년까지 아세안 경제 공동체 설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 모두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많은 발전 격차가 감소했지만, 빈곤과 인적자원개발은 아직 상대적으로 격차가 두드러 지는 만큼,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별적 사회 보호 제도 및 빈곤층 자녀의 인적자본에 투자하기위한 조건부 현금지원 제도 등이 고려해볼 만한 주요 정책 수단이다.

지역 단위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진척 상황을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감시 및 집행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원 부족 및 지역어젠다보다 국가어젠다를 우선하는 것과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중에서도 특히 교통기반시설 구축, 무역투자자유화 등을 통한 사회경제적 통합이 필요하다.

문의처

Elodie Masson, elodie.masson@oecd.org, T: +33 (0)6 26 74 04 03

참고

NOTES TO THE EDITORS

『동남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

The Southeast Asian Economic Outlook: with Perspectives on China and India

본 보고서는 OECD Development Centre 가 발간하는 아시아의 경제 성장, 발전 및 지역간 통합에 대한 지역별 경제 보고서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세안 10 개 국가(브루니,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 PDR,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지역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중국 및 인도의 해당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http://www.oecd.org/dev/asiapacific>)

The OECD Development Centre

The Development Centre (www.oecd.org/dev)는 OECD 와 협력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발전 및 빈곤 퇴치 등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 기관은 OECD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독특한 기관으로서, OECD 회원 국가와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기업, 시민사회기관 등이 함께 공통 당면 과제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을 주도하고자 한다.